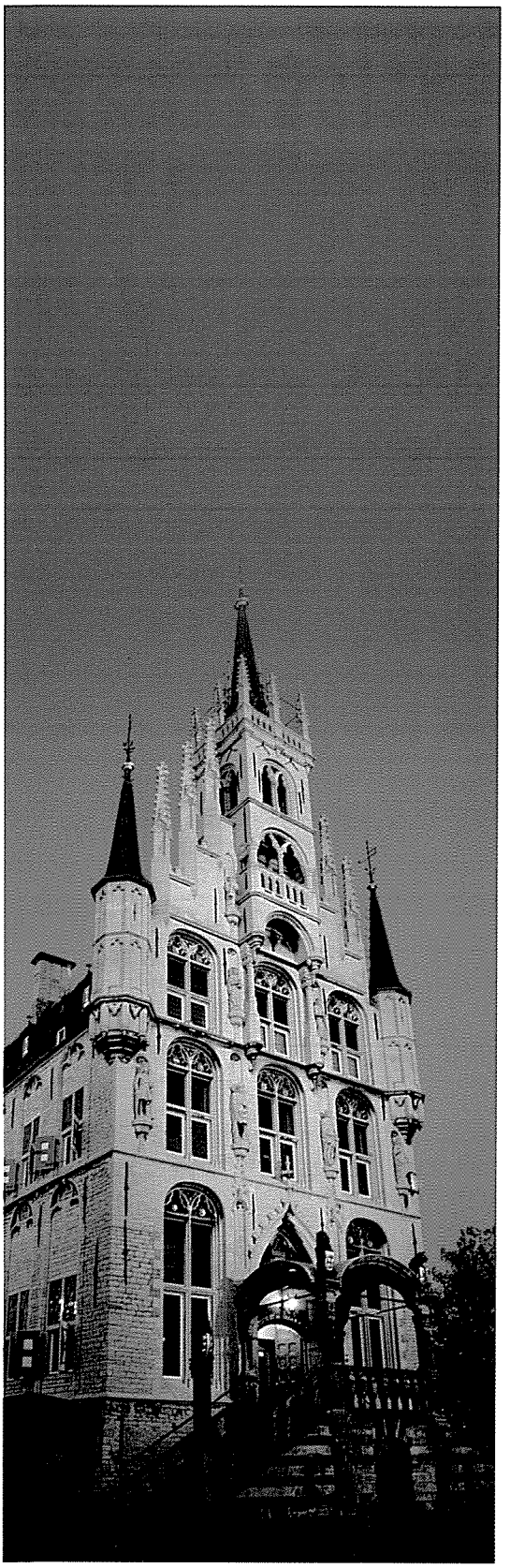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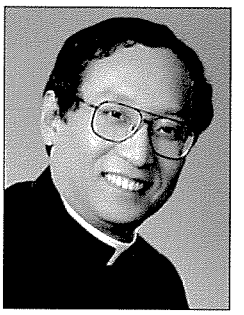


교회음악, 듣는 음악과 부르는 음악

오늘날 우리가 연주하고 감상하는 교회음악은 부르는 음악과 듣는 음악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불러야 하는 노래도 듣고만 있지 않은 지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백남용(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교회음악 대학원장
평화방송 '교회음악으로 초대' 진행 및 해설 등

노래는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듣는 것인가? 음악이란 연주(노래 포함)와 감상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진다. 오늘날에는 노래방이란 노래문화가 널리 보급되어 누구나 마이크를 잡게 되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반사가 되었지만, 나의 소시적 일들을 추억해보면 '불러서 즐겁고, 들어서 괴로운 노래'라는 표현으로 자주 친구들의 노래를 놀려주던 일들이 생각난다.

교회음악은 어떨까? 본시 교회음악은 듣기 위한 음악은 아니고 부르기 위한 음악이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노래가 있었다. 전례나 기도모임 중에는 행렬같은 움직임이 있기 마련이다. 헌금을 위한 행렬과 영성체를 위한 행렬은 자칫 미사분위기 전체를 흩트리는 산만한 분위

기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산만해지는 분위기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교회음악이 발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에는 행렬이 이동하면서 시편을 특정한 낭송률에 따라 불렀다고 한다. 이는 전체 교중이 두편으로 나뉘어져 서로 교대로 시편을 한절씩 부르는 형식인 대응창(對應唱, Antiphona)과 전체 참석자들이 한 사람의 독창자와 서로 교대로 주고 받는 응답창(應答唱, Responsorium) 두가지 형식이 있다. 창법도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형태의 교회음악으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이 두가지 창법의 공통점은 역시 신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점이다. 신자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기도모임 중에 성가를 부르는 주인공이었다.

교회음악도 하나의 예술이기에 깊은 심미안을 가진 사람들과 예술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에 의하여 끝없는 발전을 이루어 갔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간단한 단선율(單旋律)의 노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복잡해져서 지금은 특별히 노래의 소질을 가진 사람이나 이 분야에 훈련된 사람이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런 변화와 아울러 교회음악도 본래의 부르는 음악에서 듣는 음악의 기능과 성격을 띄게 되었다.

따라서 신자 전체(Chorus)가 노래하는 부문과 성가대(Cantores)가 노래하는 부문들이 구분되고 때로는 함께, 때로는 따로 따로, 때로는 교대로 노래하는 다양한 형태의 창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레고리오 성가가 듣는 음악으로 정착하게 된 이유는 음악 애호가들이 라틴어 가사와 고대의 선율에 익숙하지 못했던 점도 있고 애호가들이 그 노래의 내용처럼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편 9세기 경부터는 원시적이긴 하지만 악보가 생겼고 11세기에 귀도 다렛죠는 4선 악보를 창안했다. 기록하는 수단에 따라 문학이 발전했듯이 기보법(記譜法)인 악보가 생기면서 음악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된다. 선율을 다듬어서 정리한 작곡이 시작되었고 단선율의 시대에서 다성부(多聲部) 음악시대로 접어든다. 이렇게 발전한 다성음악(Polyphony)이나 화성적인 단음악(Homophony)은 일정한 예술형태를 갖추고 전문가들이나 연주할 수 있는 음악으로 변화 내지는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사에는 성가대가 노래하는 부문이 따로 있고 신자 전체가 노래하는 부문은 그레고리오 성가로 운영하는 혼합형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성가대가 부르던 고도의 예술성을 지닌 음악들은 당연히 후대에 음악 애호가를 위한 감상의 대상으로 선호되게 되었다.

바로크 시대에는 순수음악인 기악의 발달과 이로 인한 세속음악의 발달이 눈부시게 이뤄졌다. 음악은 이 시대 이후로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고 대중들도 부르는 음악에서 듣는 음악의 영역으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부터 듣는 음악의 전용영역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교회음악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교회음악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작품들도 나타나고 있다. 연주홀은 발달되어서 음악가와 청중이 만나는 장이 마련되고 여기서는 교회성보다는 예술성이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 연주되는 작품들은 보편적 예술 때문에 민족과 시대를 초월한 감상자들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연주하고 감상하는 교회음악은 부르는 음악과 듣는 음악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불러야 하는 노래도 듣고만 있지 않은 지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